

# 무·감자·양파값 하락에 농가 시름 깊어간다

### 무 지난해보다 30%, 감자 16%나 떨어지 양파 생산량 증가 도매가격 3분의 2 수준

기상여건이 좋아진 탓에 무·감자·양파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급락했다. 주요 채소류 가격이 떨어지면서 밥상 물가는 안정세를 찾는 모양새지만 농가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7일 기준 광주에서 거래된 무 18kg(등급상) 도매가격은 1만원으로 1년 전 가격(1만4200원)보다 30% 떨어졌다. 이는 3년 동안의 평균 가격(1만1835원)보다도 낮다. 감자 가격의 하락 폭도 심하지 않다. 6~7월

노지복감자(하지감자)가 대량 출하될 것으로 예상돼 하락 폭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광주지역 도매시장에서 감자 20kg(등급상)는 현재 2만5000원 선에 팔리고 있는데, 이는 1년 전(2만9600원)보다 16% 떨어진 가격이다.

무안에 최대 재배지를 지니고 있는 양파 값 사정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전남지역 양파 재배면적은 8475ha로 지난해에 비해 25% 감소했으나 생육환경 여건이 좋아 생산량은 6만여 톤이 증가한 43만8000t이 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최대·최고 양파 주산지인 무안군의 윽 재배면적은 2760ha로 전국 2만1756ha의 12.7%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지역 양파 20kg(등급상) 도매가격은 1만원으로 지난해 1만4400원에 비해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평년 가격(1만4733원)보다도 낮다. 올해 양파(1kg) 소매 가격은 1654원으로 2017년 2138원, 2018년 1754원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실제 양파시장에서 거래되는 양파 1kg은 7일 기준 1500원으로 전달보다 300원 떨어졌고 1년 전(1660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주요 채소값 하락은 광주·전남 소비 자료가 신선식품지수에 반영됐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5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광주지역 신선식품지수(기준치 2015년 100)는 108.0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4%, 전달보다는 2.3% 하락했다. 전남 신선식품지수는 111.63으로 지난해보다 1.0%, 전달보다는 2.3% 떨어졌다.

품목별로 보면 광주지역에서 지난해보다 크게 가격이 떨어진 농산물은 무(-44.4%)와 배추(-35.2%), 감자(-34.9%)이었다. 반면 돼지고기(8.5%)와 쌀(10.2%), 수박(22.5%)은 크게 올랐다. 전남지역도 무(-50.4%)와 배추(-38.0%)의 가격 하락폭이 컸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주간 증시 전망

### 미 FOMC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부각 멕시코 관세폭탄 타결 가능성 호재 반도체·자동차·IT가전 등 분할매수를

글로벌 증권시장이 트럼프 노년대 미국 대통령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에 집중한 가운데 멕시코까지 확산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은 멕시코 타결가능성과 FOMC 금리인하에 기대감이 크게 부각됐다. 6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던 다우산업지수는 지난주에는 5일 연속 상승하며 4.71% 올라 2만5983pt로 2만6000선에 바짝 다가갔다. 기술주 중심 나스닥지수도 3.88% 올라 7742pt로 마감했다.

지난 5월6일 트럼프 대통령 발인 이후 중국 정부의 강한 경기 부양 의지로 박스권을 유지하던 중국 증시는 미국 증시의 급등에도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가능성 우려가 커지면서 6일 연속 하락하며 2827pt까지 내렸다. 지난주는 미국 증시 강세와 중국 증시 약세 사이에서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반등폭을 크게 확대시키지는 못했지만 양지수 모두 1.50%와 2.88% 오르며 단기적으로 지수 바닥권 확인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금요일 미국증시 종료 후 트럼프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멕시코와 협상 타결을 발표했는데 멕시코 무역분쟁 이후 상대적으로 약세가 두드러진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FOMC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금요일 미국증시 상승은 역사적으로도 고용지표가 매우 나쁘게 발표됐는데 신규 일자리 급감으로 미국 FOMC가 조기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며 상승폭이 확대됐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실질금리 인하는 기업의 이자비용을 경감시키고 채권 대비 주식의 상대수익률이 개선된다는 점에 증시에 호재로 작용한다. 최근 금리인하 기대감이 미국증시 6주 연속 하락에서 지난주 강한 반등을 보인 것도 이런 요인 때문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FRB의 금리인하는 S&P500지수 고점과 비슷한 시기에 형성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89년 이후 FRB의 금리인하는 1989년, 1995년, 2001년, 2007년으로 네 차례 있었다. 이중 1989년은 점진적으로 소폭 상승세를 보였고 1995년은 일시적 인하 후 동결하면서 경기회복과 함께 강한 지수상승을 견인했다. 하지만 2001년과 2007년 기준금리인하시기에는 첫 번째 금리인하시점부터 강한 지수조정이 동반됐다. FRB가 금리를 장기에 걸쳐 인상하다가 인하를 시작했다는 점은 경기둔화와 신용리스크가 확대된 것으로 증권시장은 인식했기 때문이다. 특히 2000년 이후 파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정책당국의 선제적 대응효과가 크게 상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직은 시기적으로 금리인하가 이루어질 시점은 아니며 금리인하 가능성이 호재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역발상적으로 하반기 또는 내년초에 FRB 기준금리인하가 실제로 발표되며 반등한다면 반등을 이용해 주식비중을 줄이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주 13일 6월 선물옵션 만기와 함께 KOSPI200과 KOSDAQ 150 구성종목의 정기변경을 위한 편입종목조정이 예정되어 있다. 해당지수 추종 ETF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편입영향이 커지고 있으며 편입종목보다는 제외종목의 하락폭 및 거래량소가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제외대상종목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주에도 국내증시는 내부요건보다는 파월의장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멕시코 협상타결 등 외부호재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약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증시의 반등여부에 따라 하방경직성을 높이며 반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낙폭이 과

대한 반도체와 원화약세 수혜주인 자동차, IT가전, 그리고 지수반등을 고려한다면 레버리지ETF 분할매수도 가능해 보인다.

정 계 두

(유통투자증권 광주지점장)

## 고령 농업인 보행보조기 전달식

일시: 2019년 6월 7일(금) 주최: 평동농업협동조합



보행보조기 전달식 농협 광주지역본부와 농협재단은 지난 7일 평동농협에서 고령 농업인의 편의를 위한 보행보조기 302대를 광주구 14개 농협에 전달했다. <광주농협 제공>

## 귀리·목이버섯도

### FTA 직불금 지급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품목에 귀리와 목이버섯이 선정됐다. 폐업지원금 지급 품목은 없는 것으로 결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란 FTA 체결과 이행으로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나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31일까지 농업인으로부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오는 8~9월 서면·현장조사를 거쳐 올해 안에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40마리에 70만원까지... '초여름의 별미' 병어 잘 나가네

### 40마리 기준 위판가 36만~38만원 14~15일 '신안군 지도섬 병어축제'

'초여름의 별미' 병어가 제철을 맞아 인기다. 광주·전남에서 병어 축제가 잇따라 열리면서 늘어난 수요에 '물량을 못 맞출 정도'라는 말도 나올 정도다.

9일 수협중앙회 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6월6일까지 광주시 서구 매월동 수협광주공판장에서 거래된 병어는 지난해보다 33%(2422kg) 증가한 9785kg을 기록했다. 거래금액은 2억14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700만원(21%) 어치 더 팔렸다. 수협은 신안의 대표 수산물인 병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9일까지 열흘간 '병어 축제'를 열었다.

전남지역 병어 위판가격은 7일 기준 40마리(15kg) 한 상자에 36만~3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20만원 정도 내렸다. 하지만 수요에 따라 특정 기간에는 신안 지도읍 송도 위판장에서 거래되는 40마리 한 상자 금액이 50만~70만원대까지 뛰기도 한다.

어획량이 지난해만큼 좋지 않아 오는 14~15일 열리는 '신안군 지도 섬 병어 축제' 물량 고민도 잇따르고 있다.

수협 전남본부 관계자는 "광주공판장에서 축

제를 열 때에도 매일 물량을 맞추느라 진땀을 뺐다"며 "신안 지도 송도 위판장까지 직접 와서 병어를 싣으려는 중국인 바이어들도 늘어나 여왕이 좋아지길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

호남지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병어 생산량은 지난해 2013년 2978t에서 이듬해 1579t으로 급감했다가 점차 오르기 시작했다. 2015년 1620t이었던 생산량은 ▲1859t(2016년) ▲2655t(2017년) ▲4489t(2018년)으로 꾸준히 늘었다. 같은 기간 생산금액 역시 344억원(2015년)→347억원(2016년)→457억원(2017년)→490억원(2018년)으로 3년 새 42% 증가했다.



5~6월이 제철인 호남 특산물인 병어는 신안 비금, 입자도 근해에서 많이 잡힌다. 살이 연하고 지방이 적어 맛이 담백하고 비린내가 나지 않아 회를 떠서 먹기도 하고 구이, 조림, 찜, 찌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해 먹을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방수

##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판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대한의사회의 의료광고심의필 제 190402-중-91648호]

## 진정한 난임의 극복은 임신의 소식이 아니라 건강한 아기의 출산입니다.

난임치료 | 시험관아기시술 | 냉성난임 | 난자냉동 | 복강경수술

정효영 원장

062)368-1700 광천동 LG유플러스 옆

의료진 | 최범재 김명미 정효영 오인경 최민영

시열병원  
Creation & Love Women's Hospital